

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

*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.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.

정치

[데일리 오피니언\(한국갤럽\) 제605호 \(2024년 12월 1주\)](#)

-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, 정당별 호감도, 대통령제 개헌 #비상계엄

['비상계엄'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여론조사 결과](#)

연합뉴스_2024.12.5.

[국민 10명 중 7명尹탄핵 찬성... 與 지지층은 반대 \[여론조사\]](#)

국민일보_2024.12.9.

['계엄 쇼크'尹 지지율 11%로 추락... 50대 이하 한자릿수 \[여론조사\]](#)

국민일보_2024.12.9.

사회 일반

[1인 가구 증가에 가구당 부채 첫 감소...평균 9천128만원](#)

연합뉴스_2024.12.9.

[가구소득 '역대 최대폭' 6.3% ↑ ...2030가구 1% '찜뚱' 8년來 최소](#)

연합뉴스_2024.12.9.

[1인가구 35.5%, 또 역대 최대...절반 이상은 연소득 3천만원 미만](#)

연합뉴스_2024.12.9.

[아파트값 양극화 심화... 상위 20% 아파트 한 채로 하위 11채 산다](#)

조선일보_2024.12.3.

['휴식 없는 열정'의 함정...자신의 마음조차 태우다](#)

한겨레_2024.12.5.

[도로 위 가장 무서운 흥기는...음주운전](#)

매일경제_2024.12.5.

[교육비 1% 오르니 출산율 0.02명 ↓ ...저출생 낳는 사교육공화국](#)

매일경제_2024.12.5.

[\[2024 교육인식조사\] 학력 차별 인식 및 교육자 자질 평가](#)

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_2024.12.4.

[\[2024 성소수자인식조사\] 성소수자 수용성, 퀴어 축제 및 퀴어 콘텐츠에 대한 여론](#)

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_2024.12.4.

경제 · 기업

[개미 하루에 1조 던져 韓 나홀로 블랙먼데이](#)

매일경제_2024.12.9.

["이번 생은 글렀어"...10명 중 4명 '내 집 마련 포기'](#)

매일경제_2024.12.4.

[대기업 70% "내년 투자 계획 못 세웠거나 없어"](#)

조선일보_2024.12.4.

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

*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.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.

국제 · 환경

[미·일·독 등 8개국 국민 과반 "북한 비핵화 가능성 없어"](#)

연합뉴스_2024.12.3.

['멀어지는 中日'...10명 중 9명 "싫어"](#)

매일경제_2024.12.3.

["이정도나?" 국민들 수돗물 먹는 이유가](#)

주간조선_2024.12.6.

["육지의 4분의 3이 사막화 위기"...유엔의 경고](#)

조선일보_2024.12.9.

건강

[20대 음주·비만 늘고, 50대 만성질환 악화...국민 건강 '빨간불'](#)

조선일보_2024.12.3.

[지난해, 20대 비만을 늘었다... 여성은 '이것' 많이 먹은 게 문제](#)

조선일보_2024.12.3.

기독교 · 종교

[올 최다 검색 성경 구절은 "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..."](#)

국민일보_2024.12.6.

[올해의 성구 "...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"](#)

국민일보_2024.12.10.

[개신교인들, 윤석열에게 큰 '분노감' 느껴](#)

오마이뉴스_2024.12.10.

기획기사 : [창간기념 여론조사], 국민일보

[중도층도 등 돌려... "탄핵 찬성" 79% _2024.12.9.](#)

[이재명 41%·한동훈 9%... 민주 지지율, 국힘의 '더블스코어' _2024.12.9.](#)

[74% "계엄 선포尹 탄핵해야" _2024.12.9.](#)

[35% "우리나라 가장 위협되는 문제는 정치권 극단 대립" _2024.12.10.](#)

[87% 계엄 공감 안해... 10명 중 7명 "반국가적 내란 행위" _2024.12.10.](#)

[50대 89% "尹 탄핵해야"... 與 지지자 25%도 찬성 _2024.12.10.](#)

[10명 중 5명은 '단계적 정년연장' 선호... 18~29세 청년층이 30~60대보다 높아 _2024.12.10.](#)